<table>
<tr>
<td>
</td>
<td>

소풍

파울 마

übersetzt von Min-Jung Ramm

</td>
</tr>
<tr>
<td> </td>
<td>

티나와 팀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번 학년부터 같은 반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름은 보데 예요.

보데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td>
</tr>
<tr>
<td></td>
<td>

그녀는 학급과 함께 갈 소풍을 계획하고 있어요. 걷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라고 보데 선생님은 말했어요.
“우리는 스타이겐발드까지 버스로 갈겁니다. 그 후 숲 근처에서 내려 유적지로 걸어갈 갑니다.”

"어느 적유로 걸어 가나요?" 줸이 물었어요.
티나는 "유적지야. 무너진 성" 이라고 정정했어요.

보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옛 기사의 성 유적지입니다. 매우 두꺼운 벽과 높은 탑으로 되어 있어요."

</td>
</tr>
</table>

	수요일 아침에는 모두가 쉴러프라자에 모일겁니다. 그곳에는 이미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각에 출발 할거예요. 3시간 후 버스는 숲 주변에 멈추어 섰어요.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라고 운전 기사는 말했어요.
	반에서 몇 명은 곧바로 가고 싶어 했어요. "빨리 가지마! 이제 숲 속을 걸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라고 보데 선생님은 외쳤어요. 우리는 함께 있고 누구도 혼자 다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길을 잃지 않아야 해요. 여기 숲은 위험해요. 나는 어느 누구도 잃어 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등산을 하다가 덩굴이 많은 곳에 이르렀어요. "산딸기다" 라고 먼저 발견한 바스티안이 외쳤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덩굴에 앉아 산딸기를 입에 가득 넣고 있었어요. "5분 남았어요.” 라고 보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잠시 후 선생님이 외쳤어요. "자, 이제 됐어요!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다시 등산길을 나섰을 때 티나는 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 가야만 해서 아쉽다. 딸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10분 만에 유적지에 도착했어요. 먼저 모두가 탑 위로 올라갔어요. 티나와 팀은 탑 꼭대기에서 숲 바닥까지 침을 뱉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어 보기로 했어요. 모두가 아래로 내려 오자 보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30분 동안 휴식을 하겠어요. 이제 샌드위치을 먹도록 하세요. 아무도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모여들 있어요.

	티나는 엄마가 싸 준 샌드위치을 보고는 "오, 싫어." "치즈 빵!" 이라고 투정을 부렸어요. "치즈를 좋아 하지 않니?" 라고 티나가 팀에게 물었어요. "응 좋아해" 라고 웃으면서 팀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바꾸지 않을래?" 라고 티나가 팀에게 물었어요. "응 좋아" 라고 팀이 말하면서 더 웃었어요. 그런 다음 티나에게 빵을 보여 줬어요: 치즈도 같이! "내가 산딸기를 몇 개 따올께" 라고 티나는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돼." 팀이 속삭였어요. "보데 선생님이 말한것 너도 들었잖아." "선생님은 눈치채지 못할거야." 라고 티나는 속삭였어요. "휴식시간이 끝날 때까지 여기로 돌아올거야." 그녀는 몰래 갔어요.
	팀은 기다렸어요. 잠시 후 보데 선생님이 "다들 여기 있죠? "라고 물었어요. "예!" 라고 팀이 젤 먼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 29명 모두 다 여기에 있는지 세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선생님는 말했어요. "누가 시작할래요?"

	"저요" 라고 엘비라는 말하며 큰 소리로 "하나!" 라고 외쳤어요. "둘!" 바스티안이 소리쳤어요. "셋!" 아킴이예요. "넷!" 팀이 소리쳤어요. 이렇게 계속 불렀어요. "티나는 곧 올거야. 그렇지 않으면 보데 선생님이 우리가 28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텐데." 라고 팀은 생각했어요. "스물여덟!" 에바가 소리쳤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후 팀은 재빨리 "스물아홉!" 이라고 외쳤어요. "좋아. 그러면 모든 인원이 다 있구나." 라고 보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팀이 두 번 대답한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름길로 갈 겁니다" 라고 보데 선생님은 말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팀은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티나는 어디 있는 거야?

	티나는 산딸기를 아주 많이 먹었어요.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유적지에 도착했을 땐, 모두 가고 없었어요. "이런 젠장!" 티나는 화를 냈어요. "다들 어느 길로 돌아간거야? 유적에서 가는 길은 세 갈래인데 티나는 왼쪽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가능한 빨리 뛰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어디로 간거야?
	마침내 팀은 멈췄어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데 선생님에게 티나가 없어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선생님에게 두번 이나 대답했다고 고백해요. “팀, 너 꾸물꾸물하고 있구나.” 보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어서 가자!" 팀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티나는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숲은 점점 더 빽빽해 졌어요. 티나는 멈추어 서서 주변을 살펴 보았어요. 어디선가 나무 가지 뿌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덩굴 속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티나는 겁이 나서 숨을 죽였어요. 토끼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덩굴에서 튀어 나왔어요. 안심한 그녀는 유적지으로 되돌아 뛰어 갔어요. 거기서 티나는 중간 길을 선택했어요. 혹시 이 길이 맞을 까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데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고 단지 아주 많이 흥분한거 같았어요. „빨리 되돌아가! 모두 티나를 찾아보자!“ 라고 선생님은 명령했어요. „우리는 티나를 찾아야 해요. 모두 함께 부르고 되돌아 가야해요.“ 하지만 티나는 유적지에도 없고 산딸기 딴 곳에도 없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맙소사! 정말 큰일이네!“ 라고 보데 선생님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을거 같아요!“

	„내 핸드폰을 버스에 두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버스로 돌아 가야 해요“ 라고 보데 선생님은 소리 쳤어요. 모든 아이들은 달려서 버스에 도착했어요. 티나는 운전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티나“ 라고 보데 선생님은 소리쳤어요. „ 티나 어떻게 찾아 온거니? „
	“길을 잃었어요. 보데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아주 무서웠어요." 라고 티나는 작게 말했어요. „난 더 무서웠어“ 라고 보데 선생님은 말했어요. „하지만 난 더 더 무서웠어요“ 라고 팀이 말했어요.
	끝